

6.15 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통일을 앞당기자!

10.26 《선거》는 반역 《정권》에 대한 준엄한 심판장

10.26서울시장 《선거》가 바로 하루앞으로 다가왔다.

10.26서울시장 《선거》의 의미

이번 《선거》는 서울시장자리를 놓고 겨루는 단순한 투표경쟁이 아니라 새것과 낡고 썩은것, 개혁과 보수, 민주와 파쇼간의 첨예한 정치적 대결이다.

제19대 《총선》과 다음이 《대통령선거》와 잇닿아있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유권자들에게 비상한 각성과 현명한 판단, 단호한 선택을 요구하고있다.

지금 《한나라당》은 어떻게 하나 이번 《선거》에서 이겨보려고 각종 《민생공약》 보따리를 펼쳐보이는가 하면 터무니없는 《색갈론》을 일으키며 정치적반대파들에 대한 《현대판 마녀사냥》을 벌이고있다.

그러나 그 어떤 감언리설과 권모술수로도 《한나라당》의 반인민적, 반역적질과 본성을 절대로 가리울 수 없다.

돌이켜보면 남조선에서 《실용정권》이 들어선 후 좋게 발전하던 북남관계는 완전파라되고 조선반도정세는 극도로 악화되었다.

민생은 최악의 도란에 빠지고 사

회는 인권이 무참히 짓밟힌 민주주의 폐허지대로, 파쇼의 암흑시대로 되 돌아갔다.

하여 남조선인민들은 《못살겠다, 갈아엎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반 《정부》, 반 《한나라당》 투쟁의 불길을 지펴올려 지난해 《지방선거》와 《보통선거》들에서 보수 《정권》에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민심의 준엄한 경고를 무시하고 여전히 사대매국, 반공화국대결, 파쇼정치에서 살 길을 찾고있으며 어떻게 하나 재집권의 길을 열어보려고 악을 쓰고있다.

만약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날로 횡포해지는 《한나라당》의 재집권악을 짓부셔버리지 못한다면 매년 《대통령선거》에서 현 보수 세력에게 《정권》을 또다시 빼앗기게 되는 비극적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남조선에 《실용》 파쇼독재의 암흑시기가 연장되고 북남관계는 더욱 악화될것이며 삼천 리강토는 핵전쟁의 참화를 입게 될

것이다.

《한나라당》을 가지고서는 불의가 정의를 심판하고 매국이 애국을 징벌하는 거꾸로 된 오늘의 남조선 사회를 바로잡을수 없고 도란에 빠진 민생을 구원할수 없으며 북남화해와 협력도 실현할수 없다.

10월 26일은 《유신》독재자가 비참한 종말을 고한 날이다.

5.16군사쿠데타로 남조선인민들의 4.19인민봉기의 성과를 짓밟고 《정권》을 강탈한 《유신》독재자는 파쇼독재에 명줄을 걸고 친미반역과 친일매국을 밝혀뒀고 동족대결에 미쳐날뛰었다.

하여 18년간의 《유신》독재통치 하에서 남조선은 세계에 류레없는 정치후진지역으로, 중세기적인 암흑 사회로 전변되었고 인민들은 초보적인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는 고사하고 생존권마저도 무참히 유린당하였으며 북남사이에는 분열의 장벽이 높이 쌓여지고 반목과 불신, 대결과 전쟁만이 고취되었다.

오늘의 《한나라당》은 《유신》

독재의 사대매국, 동족대결, 파쇼독재의 유권인자를 그대로 이

어받은 반역의 무리이다.

그들이 하는것은 《유신》독재자가 한것과 조금도 다를바 없다.

이런 반역당, 《유신》의 후예들이 또다시 권력을 독점하고 기세등등하여 날뛰는 현실이야말로 남조선 정치의 비극이 아닐수 없다.

오늘의 현실은 낡고 구태의연한 정치에 등을 돌린 남조선의 서울시민들이 《한나라당》의 재집권음모를 좌절시키고 이번 《선거》를 민주주의적세력의 승리로 결속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에게 있어서 이번 《선거》는 부패와 범죄로 얼룩진 썩은 정치에 종지부를 찍고 진보적인 정치의 새 장을 여느냐 마느냐를 가르는 일대 분수령이다. 남조선의 서울시민들은 자신들의 삶과 남조선 사회의 전도, 민족의 운명파도 직결되는 이번 시장 《선거》에서 모두가 의로운 한표를 바침으로써 10월 26일을 새것과 정의가 승리하는 역사적인 날로 만들어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한나라당》을 정치무대에서 속히 제거해야 한다

남조선인민들 주장

《구국전선》 인터넷페이지에 의하면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이 10.26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권력쟁탈에 열을 올리는 《한나라당》을 비난하고있다.

회사원 한정운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선거날이 박두할수록 《한나라당》의 상대후보에 대한 공격이 극도에 달하고있다. 보느니, 듣느니 역겹기 그지없다.

상대방에 대한 흠집내기공세에 여념이 없는 《한나라당》의 행태는 입에 울리기조차 부끄럽다.

감탕속의 미꾸라지가 맑은 물속의 봉어를 보고 감탕속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행패질하는듯 한 느낌이다.

저들의 악정을 메우려는 《한나라당》의 험담에 국민은 침을 뱉고있다.

언제까지 이런 무지막직한 행위를 없앨수 있겠는가. 그 진원을 매장하면 될것이 분명하다.

답이 나온다. 권력욕에 환장하여 선거때마다 국민불안을 증대시키는 《한나라당》을 정치무대에서 속히 제거하는것이다.

시민단체 성원 문혜철은

인터넷에 올린 《한나라당》 후보 라경원의 기만적인 《선거공약》을 조소하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라경원이 《생활악습개혁》이라는 귀맛좋은 《선거공약》을 내놓았다.

그 내용인즉 쓰레기, 소음, 악취, 유해광고물, 길거리휴먼을 5대생활공해로 지목하고 그로 인한 불편, 불안, 불쾌의 《3불》을 해소 하겠다는것이다.

《한나라당》때문에 생겨난 5대생활공해를 《한나라당》 후보가 나서서 없앨수 없다는것도 자명하거나 과연 5대생활공해를 제거하면 《3불》도 가사지나.

지금 서울시민들은 사상 류레없는 물가대란과 직업대란, 고액의 등록금 등으로 삶을 포기하고있다.

진정으로 서울시민들을 생각한다면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책부터 제기해야 하지 않겠는가.

불편, 불안, 불쾌우에 불행이 없다면 《3불》도 가사지나겠는가. 부차적인 5대생활공해니 뭐니 하는 언어유희에 녹아 없어질

《3불》이 아니다.

하긴 미군병사들의 10대녀 학생강간죄악에 대해 항변 한마디 못하고 국민의 명줄을 조이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날뛰는 추악한 사대매국당. 권력쟁탈에만 눈이 빨개 돌아가는 《한나라당》의 후보에게서 불행을 가실 《공약》을 기대한다는것 자체가 말도 되지 않는다.

말이 난감에 《3불》에 대해 론한다면 불편은 악정만을 실시하는 《한나라당》의 《강부자정책》에 의해 빚어지고있다. 불안은 보수패당의 극악한 동족대결공약에 의해 초래되며 불쾌 또한 국민우정의 기만술책을 일삼으며 돌아오는 보수정당의 역스러운 불꽃에서 온다.

결과는 명백하다. 《3불》해소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할것은 《한나라당》 박멸이다.

《한나라당》이 정치무대에서 제거되면 《3불》은 저절로 사라져버릴것이다.

라경원은 《3불공약》에 대해 항간에서 《가을바람에 락업지는 소리》라고 평하는 말뜻을 깊이 새김이 좋을것이다.

본사기자

《한나라당》후보가 선거후부터

전하여 북남관계를 어떻게 되새겨만보아도 왜 《한나라당》 후보를 찍지 말아야 하는가 하는 이유가 저절로 설

명이 된다.

남조선에서 《한나라당》이 집권하여 한것이란 좋게 발전하는 북남관계를 불신과 대결의 과거로 되돌리고 이 땅에 전쟁위협밖에 돌아온것이 없다.

동족과는 담을 쌓고 적대시하고 《금번사태》를 운운하면서 시종일관 대결정책에만 매달려왔다. 동족을 가장 적대시하는 미국과의 《동맹》을 요란스레 부르짖으며 동서해에 핵항공모합까지 끌어들이고 결국 서해를 포탄이 오가는 전쟁의 바다로 만들었다.

이것은 동족을 같은 피를 나눈 민족으로가 아니라 《주적》으로 삼고 공화국을 무력으로 암살하려는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의 반공화국대결정책이 가져온 엄청난 후과이다.

지금 《한나라당》이 권력과 당력을 총동원하여 상대방후보를 물어뜯는 비렬한 《색갈론》소동을 다시 일으키고있는것은 체질화된 동족대결근성의 발현이며 그들이 내흔드는 거짓 《공약》이 어떠한 《한나라당》이 대결과 전쟁의 길로밖에 갈수 없는 집단임을 다시금 여실히 보여주는것이다.

구름이 잦으면 비가 오기 마련이라고 동족을 자국하고 위협하는 친미보수세력

이 권력을 계속 쥐고 대결과 전쟁책동에 매달리게 되면 어차피 전쟁이 터질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이번에 미국을 행각한 남조선집권자는 상전의 반공화국핵소동에 적극 맞장구치며 《대북정책 변화는 없을것》이라고 공언하고 《즉각적이며 실질적인 대응》이니, 《핵확장 억제》니 하면서 미국의 침략과 전쟁정책수행의 돌격대로 나설것을 다시금 약속하였다.

서울시장후보로 나선 《한나라당》 소속 라경원도 역시 《안보관》이니 뭐니 하며 당국의 일관한 대결정책을 자기의 확고한 립장으로 대변해왔다.

전쟁이나 평화나 하는 중대한 운명의 선택권이 지금 남조선의 서울시민들의 손에 쥐어져있다 해야 할것이다.

만약 이 땅에서 미국과 친미보수 《정권》의 전쟁책동으로 전쟁이 다시 일어나게 된다면 그 피해는 이무 상상할수도 없다.

하기에 진정으로 평화를 바라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이번 선거에서 《한나라당》과 《실용정부》의 대결과 전쟁책동에 파산의 선고를 내려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김철호



야권단일후보를 지지하여 광화문광장에서 초불집회를 하는 서울시민들

《위싱턴을 점령하라》, 《월가를 점령하라》는 구호 밑에 미국에서 터진 시위 투쟁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있다. 미국을 비롯하여 수많은 나라들의 백수십여 개의 도시들에서 벌어지는 이 투쟁은 그대로 1%의 가진자가 99%에 해당하는 못 가진자들을 수탈하는 자본주의에 대한 극도의 혐오감과 분노의 분출이다.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이 투쟁이 남조선에서도 그대로 벌어지고있다.

《위싱턴을 점령하라》, 《월가를 점령하라》는 구호가 지금 남조선에서는 《서울을 점령하라》, 《여의도를 점령하라》라는 명칭 밑에 대대적인 반 《정부》 투쟁으로 벌어지고있다.

미국에서 벌어지는 반월

내 이름은 광화문이다. 내가 경복궁의 대문으로 여기 서울에 세워진 때로부터 세월은 무수히 흘러 내 나이는 61살이 되었다.

세월은 많이도 흘렀지만 이 땅에서 우리 민족과 함께 보낸 수백년 기나긴 역사의 나날들을 나는 어제런듯 똑똑히 기억하고있다.

그 나날속에는 바다를 건너온 왜적이 지른 불로 내 몸이 강그리 재가 되어버린 영연히 잊을수 없는 임진조국전쟁시기의 그날도 있었다.

나라를 통제로 일제에게 빼앗겼던 땅의 시절 경복궁자리에 들어선 일제의 《조선총독부》 건물에 밀려 건춘문(경복궁의 동쪽문)북쪽에 옮겨진 채 서있는 수십년 치욕의 나날도 있었고 전쟁의 동란속에 미군비행기의 폭격으로 불에 타는 비극의 날도 있었다.

이 땅에서 조선민족과 함께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며 헤쳐온 이 나날속에는 나는 사대와 망국이 무엇이고 자주와 민주, 애국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다.

1%의 가진자들의 후보

가투쟁이 미국독재를 대변하는 1%의 가진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으로 번져지고 있지만 남조선에서 벌어지는 《여의도를 점령하라》는 투쟁은 재부와 함께 사대와 매국정치를 일삼는 1%의 특권상층을 반대하는 투쟁으로 되고있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미국의 월가가 미국금융독재의 상징으로 된다면 남조선에서 여의도는 온갖 부정부패만을 일삼는 《한나라당》의 아성으로 썩은 정치의 대명사로 불리우는 곳이다.

《여의도를 점령하라》라는 구호에는 그대로 반역정당인 《한나라당》을 타파하

를 바라는 민중의 편에 서 있었다.

최근년간 이 땅은 또다시 애국과 매국, 민주와 독재, 통일과 분열사이의 심각한 투쟁의 불길속에 휩싸여 있었다.

지난 2008년 집권하자마자 인민들의 건강에 해를 주는 미친소송위험이 있는 미국산 소고기를 끌어들이던 남조

라는 남조선인민들의 요구가 깃들어있다.

《한나라당》의 소속으로 서울시장 《선거》에 후보로 나선 라경원은 여의도정치를 대변하는 인물로서 남조선인구의 99%의 리익을 해치는 1%에 해당하는 특권층의 후보이다.

그가 말로는 현 집권자를 따라 서민정치를 운운하지만 실지 그가 살아온 경위나 행동하는 모든것들은 99%를 반역하는 1%의 대반지역활반이었다.

1 000만원의 등록금이 없어도 대학생들이 과외로돈을 하고 이것도 견디지 못해 자살할 때 그는 1억원짜리 고

급미용원에 다녔는가 하면 수만US\$를 들여 자식들을 미국에서 공부시키고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처지가 없어 거리를 방황하고 변변한 제 집이 없어 결방살이를 하고있는 지금 라경원은 집가지고 부동산투기하여 술한돈을 벌어들였다. 그러면 서도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얼마간의 집세로 세방살이를 하고있는 상대후보를 후보보고있다.

1억원짜리 반지를 끼고 40억원의 재산을 흔드는 라경원이가 과연 서울시민들의 고통을 리해하거나 하겠는가.

특권층을 옹호하는 《한

투쟁이 계속 벌어지고있다. 지난 5월부터 광화문광장에서는 반값등록금실현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초불이 수십일동안 그칠줄 모르고 타올랐다. 6월에는 《자유무역협정》 폐기, 로동탄압중단, 반값등록금상시 등을 요구하는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수만명이 참가하는 《6.29법국민대회》가 목

구미용원에 다녔는가 하면 수만US\$를 들여 자식들을 미국에서 공부시키고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처지가 없어 거리를 방황하고 변변한 제 집이 없어 결방살이를 하고있는 지금 라경원은 집가지고 부동산투기하여 술한돈을 벌어들였다. 그러면 서도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얼마간의 집세로 세방살이를 하고있는 상대후보를 후보보고있다.

1억원짜리 반지를 끼고 40억원의 재산을 흔드는 라경원이가 과연 서울시민들의 고통을 리해하거나 하겠는가.

특권층을 옹호하는 《한

투쟁이 계속 벌어지고있다. 지난 5월부터 광화문광장에서는 반값등록금실현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초불이 수십일동안 그칠줄 모르고 타올랐다. 6월에는 《자유무역협정》 폐기, 로동탄압중단, 반값등록금상시 등을 요구하는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수만명이 참가하는 《6.29법국민대회》가 목

를 말할하고 분열이 애국을 매도하는 사람 못살 생지육으로 만들어놓은 남조선 현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제 곧 진행되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저들의 후보를 당선시켜 추악한 권력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최후발악을 하고있다.

그러나 불의가 정의를 결코 이길수 없다.

지난 22일 저녁 내 앞에 있는 광장을 가득 채운 수많은 서울시민들이 민주개혁세력이 내세운 야권단일후보를 지지하여 《MB정권》 규탄의 목소리를 높인것은 이 땅의 정의가 아직 죽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역사의 증언자로 수백년을 이 땅에 살아온 나(광화문)도 오늘은 소리높이 웨친다.

《서울시민들이여, 10.26대통령선거에서 사대와 매국, 파쇼와 동족대결에 광분하며 시대와 역사의 흐름에 역행하는 반민족, 반통일분자들에게 철추를 내리라!》

김철민



야권단일후보를 지지하여 광화문광장에서 초불집회를 하는 서울시민들